

中企, 달라진 원산지표시·관세에 진땀

한미 FTA 발효 1년
전남 지원센터 가보니

관세사 등 컨설팅팀 구성
50개 기업현장 사후관리

“완도에서 제작한 달걀을 중국에 수출해 가공한 뒤 한국에 들어와 미국에 수출하면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죠?”

14일 오전 여수시 율촌면 A가공업체 사무실에서는 때아닌 원산지 논쟁이 불붙었다. 이 업체는 완도 등지에서 생산되는 달걀을 중국에 수출해 가공한 뒤 다시 수입, 미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회사 관계자와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오주승) FTA 활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달걀의 생산지는 한국이지만 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수출한 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미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을 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문제가 수학 공식처럼 어려워진 것이다.

달걀은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소금으로 세척하기 때문에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완제품의 원산지 표기 문제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한미 FTA 발효 1년(15일)을 맞은 진풍경이다.

한미 FTA 발효 1년, 광주·전남 중



한미 FTA 발표 1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FTA 활용지원센터 관계자가 여수지역 한 업체를 방문해 까다로워진 수출입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소기업들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TA 발표에 따른 지역 내 실익은 아직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아 예상할 수 없지만 전남지역 김수출이 소폭 늘어나는 등 대미 무역에 상당한 변화를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주민구식으로 이뤄지던 수출입 업무가 FTA 발표로 체계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 내 대규모 무역업체가 그리 많지 않아 한미 FTA 변화는 눈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14일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FTA 활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0여 곳의 중소기업이 센터의 도움을 받아 FTA 관련 수출입 업무를 진행했다. 원산지표시와 관세 등의 변화로 수출입에 애를 먹는 중소기업들이 FTA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FTA 지원센터는 관세사와 원산지 관리사로 컨설팅 팀을 구성해 50개 기업을 현장 컨설팅하고 기업 관계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현장 컨설팅을 늘린 이유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방법, 과다한 원산지증명서 서류 제출의 부담 등을 FTA 확대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미 FTA 1년 국가 실의 평가 엇갈려

오는 15일 한미 FTA 발표 1년을 앞 두고 국가적 실익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14일 ‘한미 통상 미결 과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발효 후 대(對) 미국 수출은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총 585억 달러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총 수출이 1.3%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셈이다. 자동차부품 수출이 12.4%, 석유제품이 11.9% 씩 늘며 혜택을 특히 봤다. 합성수지도 평균 6.5%의 관세 인하로 대미 수출이 27.1% 확대 됐다. 미국산 수입은 433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2.8% 줄었다. 경기 침체로 국내 수요가 감소한 때문이다.

큰 피해가 우려됐던 농산물 수입도

전년 대비 14.6% 축소됐다.

반면 이날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미FTA저지법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 발표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미 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지난해 4.1%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2011년 증가율이 1.3%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셈이다. 자동차부품 수출이 12.4%, 석유제품이 11.9% 씩 늘며 혜택을 특히 봤다. 합성수지도 평균 6.5%의 관세 인하로 대미 수출이 27.1% 확대 됐다. 미국산 수입은 433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2.8% 줄었다. 경기 침체로 국내 수요가 감소한 때문이다.”

큰 피해가 우려됐던 농산물 수입도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남출신 검찰총장 나오나?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선 연기

지역안배 고심하는 듯

청와대가 14일로 예정됐던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 대표적인 권력기관장 인선 발표를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청와대는 이날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을 포함해서 외청장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보훈처장만 발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검찰총장으로 채동욱(사시 14기·서울) 서울

고검장이, 국세청장에는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졌다.

특히 전날 법무차관에 사시 14기인 김희의(57) 대전고검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 검찰 60여년 역사상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보다 사법시험 또는 연수원 기수가 낮았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채 고검장이 신임총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인선 발표가 연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를 두고 막판까지 청와대가 깊은 고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달 7일 총장 후보로 추천한 채 고검장과 함께 김진태(사시 14기·경남) 대검 차장과 소병철(사시 15기·전남) 대구고검장 등 3명을 추천했으나 현

재 분위기로는 채 서울고검장과 대구고검장이 ‘2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차관 인사에서 호남 소외가 심각하다는 비판 여론이 퍼지면서 박 대통령이 ‘호남 검찰총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고검장은 개혁 마인드를 갖춘 합리주의자인가 인화를 강조하는 온화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다 소고검장이 낙점되면 사시 14·15기들의 윤퇴가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검사장 수 죽소 등 검찰개혁 작업을 진행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될 만한 요소로 보인다.

국세청장의 경우 검찰총장 인선과 함께 고려될 인사로 판단과 인선이 연계 지연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식품산업진흥정책 토대 일궈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식량생산국장, 농림부 2차관 등을 역임했다. 농식품부에 식품산업 분야가 통합된 2008년 식품산업본부장을 맡아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틀대를 세워 국내 식품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폭넓은 인간계로 농식품부 대변인을 2차례나 지냈다.

법령심사·해석 분야에 밝아 제정부 법제처장

법제처 주요 보직을 거친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분야 전문가다. 국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암목과 기획능력, 추진력을 겸비해 조직 내외에서 신망이 뛰어다. 1983년 법제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법령해석 정보국장, 기획조정관을 거쳐 2011년부터 법제처 차장으로 재직했다.

육사출신 북한 군사 전문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군 생활 대부분을 북한 군사정보관련 부서에서 보낸 북한 전문가. 지금까지 발표된 박근혜 정부 장·차관급 인사 중 유일하게 유임됐다. 선이 굽고 확고한 국가관으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육사 27기로, 군 복무기간 12사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정보부장, 9군단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뜻만평

- 김종우



또다시 ‘5년의 한숨’이 시작...

한미 FTA 1년 국가 실의 평가 엇갈려

전년 대비 14.6% 축소됐다.

반면 이날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미FTA저지법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 발표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미 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지난해 4.1%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2011년 증가율이 1.3%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셈이다. 자동차부품 수출이 12.4%, 석유제품이 11.9% 씩 늘며 혜택을 특히 봤다. 합성수지도 평균 6.5%의 관세 인하로 대미 수출이 27.1% 확대 됐다. 미국산 수입은 433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2.8% 줄었다. 경기 침체로 국내 수요가 감소한 때문이다.”

큰 피해가 우려됐던 농산물 수입도

이어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자동차 18.1%, 선박 165.7%의 높은 대미 수출증가율을 보였지만 2011년의 증가율인 각각 27.9%, 41.3%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자동차 18.1%, 선박 165.7%의 높은 대미 수출증가율을 보였지만 2011년의 증가율인 각각 27.9%, 41.3%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조세법 전문가로 꼽힌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김앤장·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2005년 한양대 법과대학 부교수, 2007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고, 지난해

부터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장관·처장 인선 명단

◇장관급

직책	이름(나이 출생지)	현직	학력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62·경북)	최문기(62·경북)	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	경북고·서울대 응용수학과
공정거래 위원장 한민수(55·경남)	한민수(55·경남)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경북대시대부고·서울대 법학과·사시 22회

◇처장급

직책	이름(나이 출생지)	현직	학력
법제처 제정부(57·경남)	법제처 처장	마산고·동아대 법학과·행시 25회	
국가보훈 박승춘(66·강원)	국가보훈처장	강릉상고·육사 27기	
식품의약품안전 정승(55·원도)	한국말산업중앙 회장	광주 동신고·전남대 경제학과·행시 23회	

www.elysia.co.kr

“축복 받은 집” 씨푸드 뷔페 — 엘리시아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컨벤션 웨딩홀(나주점)

061-332-1111

웨딩홀

코랄+펄

코랄

150석 규모 웨딩홀

100석 규모 연회장

돌잔치, 피로연, 돌잔치,

고회연 및 각종 세미나

(30명 이상 시 가능)

50석 규모 연회장

돌잔치, 고회연, 풀선연,

각종 세미나

(40명 이상 시 가능)

★광장 20,000원~25,000원

★주말·공휴일 25,000원

※ 대관 및